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강희갑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48년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면담지원**	정지선		
면담 일시	2026 년 6 월 24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18분 58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 강희갑은 1948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1966년 인천으로 상경하였다. 둘째 형의 권유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학과에 진학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열관리기사, 소방관리기사, 위험물기사 등 다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합판 제조회사 등에서 근무한 뒤 1975년 공개채용을 통해 동양화학(현 OCI · 유니드)에 입사하여 발전소와 동력과에서 터빈 및 보일러 설비 운전과 물 · 전기 · 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82년 동양화학그룹과 다이아몬드상업이 합작해 신설한 카리화학(현 유니드)의 창립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2008년 은퇴할 때까지 약 28년간 몸담았다. 현장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관리 부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공장 전반의 경영 혁신 운동(TPM)인 '정리 · 정돈 · 청소 · 청결 · 마음가짐' 활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노사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 현장과 회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사원 아파트 건립,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저한 설비 관리와 현장 소통으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없애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만들었으며, 은퇴 후에도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동료들과의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이후에는 상조회사 운영 및 교회 행정실장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한 시대의 산업화 과정과 현장의 역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구술 기록을 남겼다.					
주요 색인어	동양화학(OCI), 카리화학(유니드), 특수베니어공업주식회사, 한국파이프, 한전, 방송통신대학교, 이회림, 강봉기,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숭의동, 송현동, 송림동, 자유공원, 소다회, 암모니아, 염화칼슘, 터빈, 보일러, 자가발전, 사원 아파트(사택), 새인천 풀장(저수지), 매립지, 국가기술자격증(열관리기사, 소방관리기사, 위험물기사, 1 · 2급 정비사), 3교대 근무, 대정비, 노동조합, 경영 혁신 운동(TPM), 상조 회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출생과 가족 관계, 상경 배경 • 출생 및 학창 시절: 1948년(호적상 1950년)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 출생.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닌 뒤 1966년 인천으로 상경함. • 진로와 기술 습득: 둘째 형의 권유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학과에 진학해 마이카 시대의 흐름을 접함. 내연기관 전공을 바탕으로 열관리기사, 소방관리기사, 위험물기사 등 다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함. • 현재 생활: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은퇴 후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활동 중임.	00:00:50 ~ 00:05:16	
2. 인천 초기 거주지와 숭의동 시절의 풍경 • 상경 초기 생활: 송현동 누나 집과 송림동 하숙집을 거치며 학생 시절을 보냄. • 결혼과 미추홀구 정착: 1973년 결혼 후 송현동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1980년대 무렵 숭의동으로 이사하여 약 10년간 거주함. 당시 비포장도로가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옛 인천의 풍경을 회고함.	00:05:17 ~ 00:08:44	
3. 동양화학 입사와 동력과 근무 경험 • 합판 회사 경력 및 공백기: 특수베니어공업주식회사(합판 회사) 발전소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약 1년간 자격증 공부에 매진함. • 동양화학 공채 합격: 1975년 3월, 300톤 규모 증설에 따른 대규모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바탕으로 동양화학 동력과에 입사함. • 핵심 업무: 발전소의 보일러와 터빈을 관리하며 자가발전을 통해 공정에 필수적인 스팀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공정 내 원료 굳음 현상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적 역할을 수행함.	00:08:45 ~ 00:17:19	
4. 동양화학의 주력 제품과 이회림 회장 일화 • 주력 생산품: 유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소다회'와 공업용 '염화칼슘'을 독과점으로 생산하던 동양화학의 위상과 제조 공정을 설명함. • 이회림 회장 일화: 개성 출신으로 철저한 근면성과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던 이회림 회장이 1년에 한두 번 공장을 방문할 때 임직원들이 긴장했던 일화와, 직원 복지를 위해 사원 아파트를 건립했던 경영 철화를 회고함.	00:17:20 ~ 00:24:17	

5. 고단했던 3교대 노동과 학익동 골목길 풍경	00:24:18 ~ 00:29:30	
• 노동 환경: 암모니아 가스와 분진 속에서 장화를 신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일했던 열악한 현장의 고충을 증언함. • 3교대와 회식 문화: 주·야간 교대 근무로 고단했던 삶 속에서, 공장 대정비 기간(5일간)에 동료들과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화투를 치며 피로를 풀던 학익동 일대 대포집과 골목길의 추억을 나눔.		
6. 카리화학(현 유니드) 창립 멤버 합류와 노사 가교 역할	00:29:31 ~ 00:48:17	
• 스카우트와 이직: 동양화학 계열로 신설된 카리화학(현 유니드) 창립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2008년 은퇴할 때까지 28년간 근무함. • 노사 갈등 중재: 1988년 노조 설립 이후 첨예한 노사 갈등 속에서 회사와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직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7. 동양화학의 위상과 동료애의 기억	00:48:18 ~ 00:52:02	
• 사회적 신용: 당시 '동양화학 다닌다'고 하면 지역 상인들이 외상을 흔쾌히 허락해 줄 만큼 회사의 위상과 신뢰도가 높았음을 증명함. • 치열했던 직장 생활: 하루 100% 회사일에 전념하느라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산업 일꾼들의 시대적 아픔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고함.		
8. 미추홀구의 도시 변화와 옛 일터에 대한 소회	00:52:03 ~ 00:59:56	
• 도시의 변화: 오랜 기간 폐기물 매립지 등으로 변함없던 미추홀구 일대가 시간이 흘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로 바뀐 모습을 바라보는 감회를 느낌.		
9. 경영 혁신 운동(TPM)과 생산 관리 주임으로서의 활약	00:59:57 ~ 01:05:54	
• TPM 도입: 일본에서 도입된 종합 생산 보전(TPM) 운동을 현장에 접목하여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을 주도함. • 현장 개선과 리더십: 낭비 요소를 없애고 설비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만들었으며, 철저한 인간관계 관리와 섬세한 배려(직원 경조사 챙기기 등)로 '사람이 자산인' 현장을 구축함.		
10. 은퇴 후 퇴직자 모임과 상조업에서의 삶	01:05:55 ~ 01:17:54	
• 퇴직자 모임 지원: 은퇴 후에도 유니드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3개월마다 이어지고 있는 카리화학 퇴직자 모임(약 46명 규		

모)의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함. • 제2의 인생: 현재 상조 회사를 운영하며 슬프고 외로운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봉사적 삶에 대한 소회를 밝힘.		
11. 구술 면담 소감	01:17:55 ~ 01:18:58	
• 기록의 보람: 자신의 지난 삶과 지역 산업 현장의 흔적이 기록되어 미래 세대에게 한 줄의 정감이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면담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함.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